

‘만인의 오빠’ 송해 천상의 무대로

‘전국노래자랑’ 국민 MC
전국 팔도 구석구석 누벼
방송 진행 역사 ‘산증인’



송해 /KBS 제공

원조 국민 MC, 영원한 현역, 만인의 오빠, 일요일의 남자.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인 MC인 송해(본명 송복희·95)가 8일 영면에 들었다.

황해도 재령군 출신인 송해는 한국전쟁 때 실향민이 됐다.

남쪽으로 내려온 송해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1955년 장공악극단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공연 진행도 겸하면서 남다른 입담을 발휘한 게 평생 직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방송까지 진출한 송해는 1988년 5월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았다.

전국 팔도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한테나 ‘오빠’로 불린 송해는 ‘현역 최고령 연예인’임에도 호칭에 걸맞게 정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고령으로 방송이 힘에 부칠 만도 했지만 송해는 ‘전국노래자랑’ 무대를 지켰다. 1988년 5월부터 1994년 4월까지 7개월간 잠시 하차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35년간 매주 관객과 시청자들을 만났다. 말 그대로 ‘일요일의 남자’였다.

지난해 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전국노래자랑’ 후임 MC를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질문에 “아직도 이렇게 또렷도렷한데 누굴 줘”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피로 누적과 체력 약화를 이유로 2010년 이후 방송 녹화에 몇 차례 불참했고, 대중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혹시 부고 소식일까 가슴을 졸였다. 2016년에는 사망설이 퍼져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유포자를 용서한 일도 있다.

올해도 두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작곡가 이호섭과 임시인 아나운서가 MC를 대신 맡아 격정을 사기도 했다.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하다가도 카메라 불만 켜지면 작두를 타는 무당처럼 기운이 팔팔 솟아나는 것 같으며 방송가에서는 ‘작두장군’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지역 갈등, 고부 갈등, 직업 간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성별과 세대 간 갈등이 ‘전국노래자랑’에서는 해소된다. 이 프로그램은 ‘내 인생의 교과서’”라고 방송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송해는 전국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처하는 관록을 바탕으로 ‘영원한 현역’으로 불리며 방송 진행 역사의 산증인 역할을 했다.

그런 송해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살았다.

1998년 금강산 관광단으로 고향 땅을 밟았을 때는 아이처럼 좋아했고, 2003년 ‘전국노래자랑’ 평양 편에서는 모란봉공원 평화정 앞 무대에 올라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며 “다시 만나다”라고 안타까운 작별인사를 전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다.

하나 있던 아들을 1994년 교통사고로 잃었고, 2018년에는 부인 석옥이 씨를 먼저 보내면서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다. 송해는 부인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부부가 함께 묻히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곤 했던 것으로 전한다.

송해는 자신을 수식하는 수많은 말 중에 ‘오빠’가 가장 좋다고 했다.

“양평에 갔을 때는 105세 된 누님도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나처럼 동생 많은 사람이 없잖아. 오빠라고만 하면 그저 좋아.” /연말뉴스

김건모·클론·박미경 LP로 만난다

1990년대 주요 음반 제작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가수 김건모, 클론, 박미경의 음반이 LP로 다시 태어난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음반 기획·제작사 사운드트리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김창환(59)이 과거 라인음향(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주요 음반을 LP로 제작하기로 했다.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김 회장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음반 제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을 데뷔시켜 총 6장의 음반을 프로듀싱했고, 김건모를 발굴해 ‘핑계’, ‘잘못된 만남’ 등의 곡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밀리언셀러’(음반 100만 장 이상 판매) 반열에 올랐다.

사운드트리 측에 따르면 LP 음반은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나올 예정이다.

먼저 김건모의 정규 1집과 3집, 클론 1집, 박미경 2집 등을 낸 뒤 나머지 앨범도 순차적으로 발매할 계획인데 카세트 테이프 제작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가능하다면 (그동안 제작한) 모든 앨범을 LP로 내는 게 목표”라면서 “다시 노래를 듣다 보니 한 곡 한 곡 에피소드가 생각나



1990년대 히트한 가요 음반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건모 1집과 3집, 박미경 2집, 클론 1집 앨범 사진. /멜론 캡처

면서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떠오르더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회장이기도 한 그는 지금의 ‘K팝 열풍’ 근간에는 1990년대 가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가요가 팝의 형식을 취한 나라는 아시아 전체에서도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일본도 따라오지 못했지요. 가요를 팝으로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있었고, 후배들이 지금 K팝을 이끌고 있죠.” /연말뉴스

‘브로커’ 이지은 “말도 안되는 행운”

칸 영화제 레드카펫 소감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죽기 전에 떠오를 것 같았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가수 겸 배우 이지은(아이유)이 첫 상업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소감을 밝혔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를 매개로 만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그린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연출작이다. 고레에다 감독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지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한다.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연기에 대한 칭찬 때문에 부담을 가져본 적은 없다”면서 “이제 칭찬도 받네”라는 생각이 더 잘해줄겠다는 원동력은 분명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연기한 소영은 베이비 박스 앞에 놓아둔 아이를 뒤늦게 찾으려 한 미혼모다.

영화는 이형사(이주영 분)의 입을 통해 아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데는 제도의 문제가 있



가수 겸 배우 이지은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다고 말한다. 이지은은 “소영이는 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연민하기보다는 그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고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브로커’ 속 인물들에 대해 “정신적으로 유대하고 민낯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가족이라 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서 “그게 관객분들께도 전달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연말뉴스

정준일, 선예와 듀엣 ‘다시 사랑~’ 발매

내일 음원사이트 공개

가수 정준일이 선예와 함께한 듀엣곡을 선보인다.

8일 소속사 엠와이뮤직에 따르면 정준일은 이달 10일 오후 6시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선예와 함께 부른 신곡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발표한다.

이 곡은 정준일이 2년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던 미발표곡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준일은 그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기다림에 화답하고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붙여 곡을 정식 발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일이 듀엣곡을 내놓은 것은 2019년 권진아와 함께한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에 이어 두 번째다.

정준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신곡 소식을 전하며 “선선하게 바람 부는 계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을 즈음이 좋겠다”고 전했다.

2009년 밴드 메이트로 데뷔한 정준일은 2011년 솔로 1집을 내고 음악 활동을 해 왔다.

그는 매력적인 중저음과 감성 표현을 선보이며 ‘안아줘’, ‘고백’, ‘새겨줄’, ‘바람’, ‘그래야니까’ 등의 곡을 발표해 사랑받았다.

/연말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망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10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통합뉴스룸 9:20 오라차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가면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글로벌 동물 뉴스 11:15 똑딱구조대2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두디더쿵 7:15 티시테시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빅블루 9:30 어떻게 만들까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개미와 배짱이 1:50 영의정 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메인즈 3:05 클래스 3:25 EBS 비즈니스 리뷰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넬로피 4:25 한글용사 아이야 4:40 당동명 유치원 5:00 EBS 뉴스 5: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5:30 하프와 친구들 6:00 생방송 워든지 해결단 7:00 미니공대 예니멀트론 7:30 한국의 둘레길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이것이 야생이다3 10:45 바닷가 사람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메인즈 11:55 클래스
12:0 통합뉴스룸 1:00 별별다방 1:50 생활의 발견 2:00 통합뉴스룸 2:10 세상을 걷다 스페셜 2:30 빙과 후 초능력 3:00 주디세이 3:15 풀꽃이의 그림일기 3:30 고등등심포니 3:45 다이노 파워즈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00 박원숙의 같이 삼시세끼 2:00 생활정보 스페셜 3:00 KBS 뉴스타임 3:10 걸어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뽀족뽀족 포크가족 5:15 티티 체리 5: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지금부터. 쇼타임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본 좋은 날 4:55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35 왜 오수재인가 2:00 뉴스브리핑 4: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00 SBS 오뉴스 5:50 판타스틱 패밀리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한국인의 밥상 8:30 오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다큐 인사이트 10:50 데라비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주점이 풍년 9:50 너에게 가는 속도 11:00 연중 라이브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연금 복권 720+ 7:10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실화탐사대 10:00 약카멜라 11:20 심야토크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뉴스 9:00 판타스틱 패밀리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6월 9일 (음력 5월 11일)

 子 48년생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온다. 60년생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놓치지 마라. 72년생 순리를 따르며 근심이 없다. 84년생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지 마라.	 辰 52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64년생 상대방의 비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76년생 결국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88년생 이상의 유혹을 조심하라.	 申 44년생 마음만 바쁘고 되는 일이 없다. 56년생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또 온다. 68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라. 80년생 능력을 발휘한다.
 丑 49년생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라. 61년생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겠다. 73년생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마라. 85년생 선심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	 巳 41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53년생 눈치 없이 나서지 마라. 65년생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다. 77년생 긍정적인 사고의 효과를 믿어라.	 酉 45년생 손풍에 옷을 단 듯하다. 57년생 부부사이가 좋아지는 날이다. 6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안다. 81년생 지나친 욕심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다.
 寅 50년생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62년생 명성을 전하에 떨치고 승승장구한다. 74년생 인정받고 좋은 자리로 옮겨 간다. 86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午 42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54년생 과식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쓰라. 66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78년생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면 이롭다.	 戌 46년생 잔치상을 받는 날이다. 58년생 신중함 언행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70년생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82년생 예기치 못한 배신을 당할 수 있다.
 卯 51년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63년생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75년생 마음에 없는 말은 절대하지 마라. 87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未 43년생 경사가 겹치는 좋은 날이다. 55년생 구설수는 있겠지만 큰 손해는 없겠다. 67년생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79년생 과음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亥 47년생 눈 뜨고 도둑맞는다. 59년생 냉정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71년생 대립이 아닌 타협이 필요한 순간이다. 83년생 원적을 지키면 낭패는 없겠다.